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진은 한인 청소년들이 올림픽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대입 준비, 9학년부터 시작하라

카운슬러 면담전 수강과목 등 알아둬야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해야 지도력 키워

평키지 샤마의 대입가이드

고교 새내기가 되는 학부모들은 중학교 때와는 사뭇 다른 고교 시절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한다. 캘리포니아 고교 평균 한 명의 카운슬러가 700명이 넘는 학생을 돕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카운슬러가 해주는 데로 수업 스케줄을 잡았다가 낭패를 본 예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는 부모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과연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공교육에만 의존해도 괜찮은 것인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9학년부터 세워야 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9학년부터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장이나 과외활동에 참가했던 기록, 일한 경험 등 각종 기록을 모두 수집해둬야 한다. 바인더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스크랩을 해둔다면 대입 지원서 작성시 시간을 다축

은 영어 4년, 수학 3년, 실험과학 2년, 역사 2년, 외국어 2년, 예술 1년, 선택과목 1년 과정이 필요하다. 고교에서 택하는 과목과 짝은 대학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마다 원하는 필수 과목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카운슬러와 상의해야 한다.

3. AP나 어너(Honor) 과목을 듣기 위해서 들어야하는 예비과목(Prerequisite)을 알아야 한다. AP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그 전 학년에 들어 있어야 하는 예비과목이 있다. 예를 들면 AP생물을 듣기 위해서는 생물 어너스에서 B이상의 점수를 받거나, 생물 일반 클래스에서 A를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3월에서 5월 중에 AP과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이 어너와 AP과목을 택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AP나 어너과목이 적다면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에 가서

5. SAT, SAT II, ACT, AP, PSAT 등의 표준 고사를 언제 볼 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만약 11학년 초에 SAT를 계획하고 9학년부터 매주 20~5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기 시작한다면 단어암기를 위한 벼락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용을 분석해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각 학기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 지도 계획하자.

6. 봉사활동을 찾아보자. 자녀가 관심이 있고 4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봉사나 자원 봉사 활동을 찾아 멤버로 가입할 것. 꾸준한 봉사 활동은 지도력을 키울 수 있으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경험을 얻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입 지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쌓인 봉사시간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수상 경력도 대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7. 4년의 여름방학 플랜을 세워보자. 8학년 이후의 여름방학부터 11학년이 끝난 후 여름방학까지 매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긴 안목으로 세운다.

8. 서생님/카운슬러와 대화해